

최고의 발레스타가 선보이는 환상의 무대



유니버설 발레단 '백조의 호수' 이달 17, 18일 의정부예술의전당서

의정부를 환상의 무대로 수놓을 유니버설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가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클래식 발레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백조의 호수'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작품의 하나.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 키로프발레단에서 총예술감독으로 23년간 재직했던 올레그 비노그라도프(현 유니버설발레단 예술감독)의 안무로 1992년도에 국내에서 초연된 작품으로, 지난 10여년간 국내외에

서 150여회를 공연하는 기업을 토하면서 많은 평론가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총 3막 4장으로 구성된 '백조의 호수'는 간혹 결막이 해피엔딩으로 처리되는 작품도 있지만 유니버설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 키로프발레단의 원전 안무를 그대로 따라 왕자가 악마 로트바르트를 물리치지만 결국 죽고, 오데트 공주는 이 비극적 사랑에 절규하며 막이 내린다.

특히 올해로 유니버설발레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준비한 '백조의 호수'는 그동안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우리시대 최고의 발레스타들과 유니버설발레단의 화려한 앙상블이 함께 하여 고전발레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발레팬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자 고전 발레의 대표작인 '백조의 호수'가 선보이는 화려한 무대세트와 의상 등 풍성한 볼거리에 흠뻑 빠져보자.

문의 031-828-5841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이문용 작가

작가가 되는 현실이 그리 탐탁치는 않죠. 장르 자체의 분위기에 푹 빠져들고 좋아서 하는 것인데...

동시대를 살아가는 포천의 예술인 ⑦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 이문용

"우리나라에는 '작가'가 너무 많아요. 자유와 개성을 추구하는 예술 장르에서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작가 되는 현실이 그리 탐탁치는 않죠. 장르 자체의 분위기에 푹 빠져들고 좋아서 하는 것인데..."

하지만 그것이 사진을 그나마 전문적으로 배운 마지막이었다. 다행인 것은 사진 촬영을 좋아하시던 아버지의 전폭적인 후원 덕에 당시 80kg짜리 백미네 가마에 육박하던 개인 카메라를 구비할 수 있었던 것. 카메라를 소장하고 있으니 사진 찍을 기회가 더 많았다는 말할 나위도 없다.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길에 오르며 카메라를 꼭 챙겼다. 포천으로 이사오기 전까지만 해도 집에 확대기와 암실까지 갖춰져 있을 정도였다. 그는 "촬영하고 인화하고 혼자 책 보고 공부하고 연습하고 계속 반복했죠"라며 당시를

'한국의 비경 앵글에 담으며 희열 느껴'

사진촬영 왕도 없어... 많이 찍어야 앞으로 비경 모은 책 출간할 계획

사진계의 언더 주자로 불리는 이문용(50. 대전대 근무)씨가 현재의 사진작가 등용 기준에 대해 일침을 놓는다.

"작가라는 칭호에 그리 연연하지 말고 내가 좋아서 하면 그만이고 다른 사람이 내 사진보고 좋아하면 그만"이라는 그는 소신대로 공모전에 출품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저 이곳 저곳을 여행하면서 그 모습을 아름답게 앵글에 담으려 한다. 누군가가 귀찮아할 듯 1년 안에 사진작가 타이틀을 달 수도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취미일 뿐"이라고 못박아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나질 수 있는 풍경 하나 하나가 새로워 보이죠. 꽃을 봐도 수술 하나 암술 하나 꽃잎 하나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그가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을 좋아하게 된 것인지, 자연을 좋아하면서 사진을 찍게 된 것인지의 확실치 않다. 하긴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닐테다.

중 2때 처음 특별반으로 사진반에 가입하면서 처음 카메라를 잡아봤다. 사진에 관련된 책까지 쓴 지도 교사 덕분에 더욱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나질 수 있는 풍경 하나 하나가 새로워 보이죠. 꽃을 봐도 수술 하나 암술 하나 꽃잎 하나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그가 사진을 찍으면서 자연을 좋아하게 된 것인지, 자연을 좋아하면서 사진을 찍게 된 것인지의 확실치 않다. 하긴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닐테다.

중 2때 처음 특별반으로 사진반에 가입하면서 처음 카메라를 잡아봤다. 사진에 관련된 책까지 쓴 지도 교사 덕분에 더욱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나질 수 있는 풍경 하나 하나가 새로워 보이죠. 꽃을 봐도 수술 하나 암술 하나 꽃잎 하나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도 지겹지 않아요."

회상했다. 현재 포천의 사사모(사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활동하는 그는 출사를 나갈 때마다 회원들에게 "촬영지에 가면 절대 먼저 카메라를 꺼내지 말라"고 강조한다.

마운트(슬라이드 필름의 테두리)를 대고 적어도 30분은 좋은 구도를 찾으라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진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진은 '절제'죠. 독특한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면 되는데 좋은 것을 다 담으려고 해요."

앞으로 그는 우리나라의 비경을 모은 책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고 사람들이 사진 속 장소를 찾는 것은 생각만으로도 짜릿한 일이다.

"사진이 예술 분야에 속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또 쉽게 대중화됐죠. 계속 이렇게 취미로서의 사진이 부각돼야 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을 묻자 "왕도가 없다"는 대답이 바로 돌아왔다. 비결은 그저 많이 찍어 보는 것 밖에 없다는 얘기다.



△ 이 작家的 작품 '방갈로'



△ 이 작家的 작품 '일몰'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이희용의 연극이야기(89)

주인 없는 공연장 조화로운 발상의 전환을



△ 이희용 포천 연극협회 지부장 본지 지문위원

지난 4월 4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는 전국연극계 경기도 대회 심사공연이 있었다. 이번 공연은 해마다 그러했듯이 지기 지역에서 공연을 하고 심사위원이 찾아가서 심사하는 지역의 연극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공연 프로그램이었다. 특히 우리 포천에서 22년간 그 생명을 지켜온 「극단 한내」의 작품 푹박어전은 공연을 지켜본 사람들에게 의하면 감동이 있는 극이었다고 표출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에게 얼마나 가지고 싶었던 극장이고 무대인가? 그 무대에서 우리지역 자생 공연단체로는 최초의 공연이라는 감격적인 공연에 생각 외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긴 세월 변변한 볼거리를 찾아볼 수 없었고 문화적인 소외로 찌들어 있는 현실 속에서 격을 갖춘 공연장이 생겨 신비함과 생소함의 감동적인 거품이 이제 거의 빠지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

그런 면에서 진실로 무에서 유로의 변신을 하여 긴 세월 소외와 방관 속에서 잠초같이 성장하여 지금 그 무대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할만한 볼거리 자랑스럽게 선 우리들의 마음은 화려하지도 가식적이지도 않은 순

수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 누가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다리던 공연장이 생겼지만 진정한 주인인 우리는 외부의 사람이나 초대된 공연들에 의하여 의외처럼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 마음이 무겁게 공연을 마쳤다. 그래도 우리는 새로 지은 내 집에서 후회 없이 공연하여 쌓여있던 한을 풀면서 성취감으로 흐뭇한 여운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무대는 한번씩 지나가는 공연만이 존재하고 자력으로 우리시를 대표하는 공연을 발표할 시립극단의 필요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디에도 말할 곳이 없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품소 보여주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다른 지역 예술인을 영입하여 기존에 존재하는 지역예술가를 천대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준다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공연에서 느낄 수 있던 것은 공연장 관계자들의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읽을 수 있었고 예술적인 경험도 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건물을 관리한다는 의미가 너무

강하여 작품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음은 있으나 시행에 불편함을 가진다면 갈 길은 아직 멀다. 우리 것을 지키면서도 수준 있는 조화를 이루려면 시 당국과 시의회는 기획공연과 기획전에 들어가는 예산의 일부를 지역예술인에게 할애하여 향토예술인의 발표기회를 넓혀 주어야하고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홍보의 방향도 함께 의논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지시적인 계도가 아닌 관객에 대한 상냥한 안내와 출연자 또는 사용자에게 합리적인 사진 준비를 할 수 있게 하여 불편함이 없는 사용에도 마음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반월아트홀의 주인은 시민이고 지역예술인도 포천의 시민이기에 공연 전시장에 관한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문화부, 내달부터 '객석 5% 기부제' 확대 시행

청소년 창작도 지원해

현재 국립극장에서 자체 공연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객석 5% 기부제'가 오는 5월부터 국립극장,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정동극장으로 확대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연관람 혜택을 주기 위해 전체 관람객수의 5%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무료로 제공 하는 '객석5%기부제'를 산하 4개 공연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티켓기부제가 확대 실시되면 산하 4개 기관에서 연 1만3천명의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제도를 전국의 공립 문화예술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문예진흥원과 협조, 실시기관 및 단체에 문예진흥기금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별도의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다음세대 재단(대표 이재용)과 공동으로 청소년 대상 미디어 프로젝트 지원 프로그램인 '유스보이스2004'(Youth Voice 2004)행사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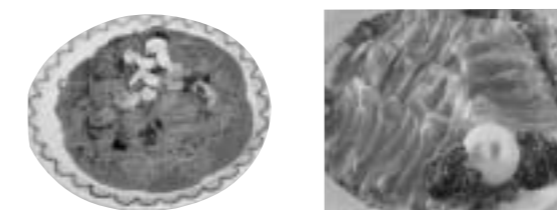
문의 : ☎ 592-9561 김영복기자 best114@hitel.net

정성어린 손맛과 깔끔한 식단을 자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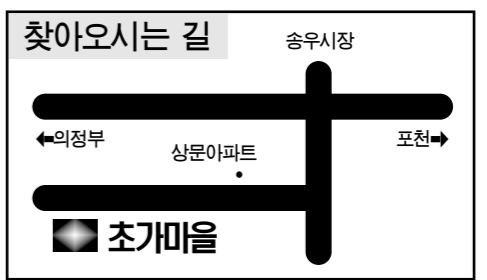
-신선한 재료 사용으로 고객의 구미에 맞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가마을”

신속한 주문배달



- | | |
|-------------------------------|------------------------|
| 감자탕대 25,000 중 20,000 소 15,000 | 된장찌개 4,000 |
| 빠두귀탕 5,000 | 김치찌개 4,000 |
| 동태찌개 5,000 | 아구찜(대 30,000 소 20,000) |
| 부대찌개 5,000 | 영양돌솥밥 7,000 |
| 냉면 4,000 | 복어탕 5,000 |
| 생삼겹살 200g 6,000 | 돼지숯불갈비(1인분) 6,000 |
| | 통북어찜 7,000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초가팔리 288번지 / 문의·예약 : 031-543-7277